

학생성공, 4년의 성과와 의미 - SKKU 학생성공 비전 도입과 확산 과정 -

곽은주(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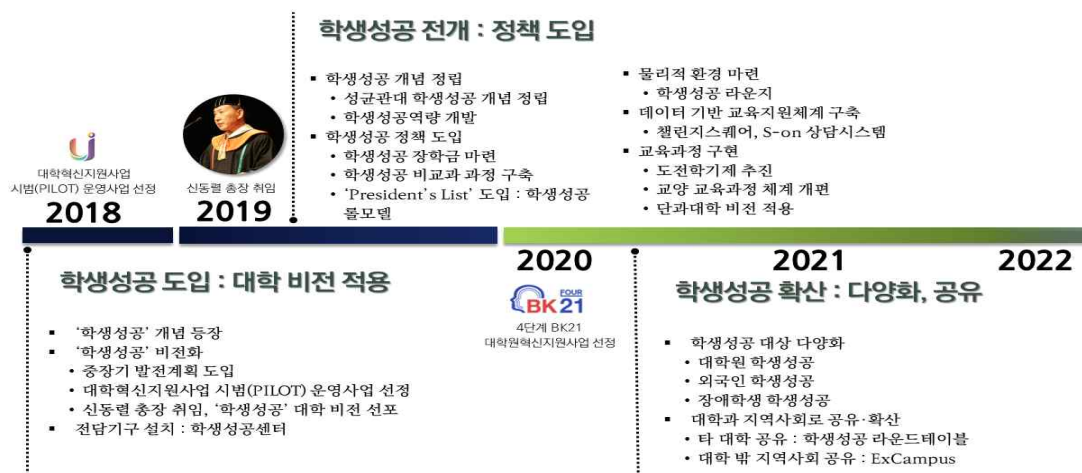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 맞춤형 교육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대학 사회에서 학생성공이 지닌 교육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성균관대는 학생성공을 대학 비전으로 내세운 지난 4년 동안 학생 개개인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발전시켜왔다. 성균관대는 학생성공 포럼 등을 통해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왔고, 국내 최초로 설립하였던 학생성공센터는 현재 국내 20여개 대학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대학 비전과 그 가치를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은 대학이 혁신하기 위한 조건이며(변기용, 이석열, 배상훈, 2017), 조직 비전은 구성원에게 조직 행동 및 성과의 방향을 제시한다(Hill, 2000; Strange & Mumford, 2005). 성균관대가 지난 4년간 대학 구성원에게 공유한 대학 비전으로서 ‘학생성공’이 지니는 의미는 2020년도 총장 신년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곧 학생을 위한 것이고, 학생들이 성공하는 것이 곧 교수님들의 성공이며, 나아가 대학뿐 아니라 국가와 인류에 대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대 제21대 신동렬 총장 2020년도 신년사)

본 발표에서는 성균관대가 학생성공 비전을 도입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과정을 도입-전개-확산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성과로서 성균관대 학생이 구성한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학생성공 의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시대변화와 함께하는 학생성공센터

(Student Success Center with the Changing Times)

박은주(계명문화대학교/학생성공·상담센터장)

1. 대학이 맞이하는 시대변화

- ◆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로의 발빠른 전환
- ◆ 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인구정책과 국내 산업의 인력 양성 계획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Digital transformation 요구도 가속화
-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대학의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적 책무), Governance(지배구조)) 철학 도입

2. 시대변화와 함께하는 KMCU학생성공·상담센터

【계명문화대학교가 생각하는 학생성공이란?】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학습활동과 즐거운 대학생활을 통해 다양한 성공경험을 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여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것

[현재진행형]

- 1)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친화형 성공역량 개발 지원 프로그램
-Early Bird & Night Owl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 학교 적응 지원
- 2) 외국인 유학생도 참여하는 성공역량 강화 프로그램
-역량 UP GO, 성공 GO GO!! : 졸업생 및 교수자의 성공경험 공유
- 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KMCU 333 UP! : 청년들의 지역사회(대구) 정착 지원
- 4) 지속가능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KMCU문화인 프로그램
-KMCU 나눔(기부) 챌린지: 환경을 생각하며 걸음으로 참여하는 기부

[추후과제]

신입생을 위한 Set-Up Program: 신입생 초기적응 프로그램

KBU 성공취업 A to Z (A to Z for KBU Successful Employment)

함도훈(경북대학교 취업처장 / 대학일자리센터장)

청년 실업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청년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북대학교는 취업에서 괄목할 만한 두각을 보이고 있다. 5년 연속 수도권대학 취업률 1위(졸업생 2,000명 이상 대학)와 2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성공취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취업의 기반을 다지고 학과별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구성원들의 열정과 졸업생들의 관심 및 이를 수용하는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학이 곧 취업’이라는 마인드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I. 성공취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문제점	- 취업의 현실적인 지원 조직 부재 -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으로 직무능력 향상 한계 - 획일화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시스템의 분산 및 활용도 저조
대응전략	- 취창업 친화적인 조직으로 개편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 - 학과 맞춤형 취창업지원 로드맵 완성 - 취업성공을 위한 KBU 취창업지원시스템 구축

II. 학과별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

- 100% 취업보장형 산학협력 통한 동반 상생 협약 체결
- 실제적인 산학연계프로그램 운영
- 접근성 향상을 위한 Application 개발
- 학과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코리아텍 장기현장실습(IPP) 취업률 제고 효과

배상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IPP센터 교수)

충남 천안에 소재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991년 개교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학계열 및 HRD 특성화 대학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10년 교육부가 대학의 취업률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매년 80%를 상회하는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률 성과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대학의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라는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IPP는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유래한 코업(Co-op,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산학협동교육)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2012년 한국 대학문화에 맞게 벤치마킹한 ‘한국형 코업(Co-op)’이다. 코업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코업 실습생이 제공하는 양질의 업무성으로 실습 운영 비용이 상쇄되고,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함으로써 인력채용과 교육훈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검증한 바 있다.

IPP는 학부 3~4학년 학생들이 4개월 또는 6개월간 대학과 현장실습 산학협력을 맺은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중견 및 중소기업, 직업훈련기관,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며 조직체험 및 전공실무능력을 쌓는 현장실무형 교육제도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IPP는 2015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통해 전국 36개 대학에 운영 중에 있는 등, 한국 장기현장실습제도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4천여 명의 학생이 IPP에 참여했으며, 연간 배출되는 900여 명의 졸업생 중 약 40% 가량인 370명 내외가 매년 경력개발 향상을 위해 IPP에 참여한다. 국내 대학 중 3~4학년 학생이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비중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단연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일보 공학계열평가의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지표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21년과 ’2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도 IPP의 학생 참여 실적 때문이다.

IPP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미참여 학생들보다 5.7%p 높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대학 취업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나오는 이유는, 학생들이 IPP를 통해 조직문화 체험과 업무 프로세스를 습득할뿐 아니라 일정한 교육훈련을 거쳐 정규직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따라, 전공실무역량을 크게 함양하기 때문이다. 신입사원 채용시 평가요소 1순위로 ‘직무관련 경험’을 꼽고 있는 기업체의 인력채용 트렌드에, IPP는 풍부한 실무경험의 제

공으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채용연계형’ IPP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IPP를 통해 우수한 대학생 인력 활용과 더불어 태도와 업무 스킬 등의 검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 뽑게 되면, 신입사원 교육훈련 및 채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4학년 졸업반 학생들 역시 취업에 드는 시간 등 소모적인 비용을 줄이고, 재학 중 대학에서 연계한 실습기관에서 IPP 수행 후 곧바로 ‘취업’이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IPP는 학생과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산학협동 프로그램이다.

올해 하반기에 IPP 참여를 희망한 122개 기업에서 무려 700명이 넘는 직무 수요가 접수될 정도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PP를 통해 우수한 학생 인력을 활용 및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는 매우 강하다.

한국기술교육대 IPP는 ‘21년 7월 개정된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표준현장실습학기제’(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대학교육과 기업 인력 수요간 미스매치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 현장실습을 총괄하는 IPP센터에는 대기업 및 외국계기업 임원 출신의 산학협력 중점교수가 배치되어, 활발한 기업 네트워크와 신규기업 발굴 등에 매진함과 더불어 ‘1학부 1교수’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재학생 현장실습을 통한 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도 강점이다. 산중교수들은 IPP를 마친 학생들도 추천채용 희망 중견기업에 취업시키는 역할도 함으로써 대학생 ‘취업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취준하지 않고 취업하기 (Getting a Dream Job without Extra Preparation)

배상훈(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장 / 학생인재개발원장)

취업은 학생성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취업은 대학생활을 얼마나 알차고 보람차게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이고 첫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취업에 성공한 학생을 보면, 두 유형이 있다. 첫째 유형은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나를 뽑아줄 법한’, ‘지금 내가 가진 스펙으로 도전해도 좋을 법한’ 회사를 찾고, 거기에 맞추어 기계적으로 ‘취준(취업준비)’을 해서 취업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에게 일컫는 대개 ‘나를 뽑아주는 곳’이다.

둘째 유형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특기, 적성, 흥미를 능동적으로 찾고 자신의 꿈에 맞추어 대학 생활을 디자인하면서 나를 성장시켜 ‘내가 일하고 싶은 곳,’ ‘나의 역량과 가치를 가장 잘 발휘하고 추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학생들이다. 이들에게 취준은 대학 생활 그 자체이고 성장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성균관대가 목표로 하는 취준은 후자이다. 이를 위해서는 1학년부터 나를 알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필요하다.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의 역할은 학생들이 가진 꿈과 진로에 맞추어 전공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대학 경험을 큐레이션해주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의 노력, 경험, 성취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졸업 후 사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본 발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4년 동안 성균관대가 노력해 온 것을 정리한 것이다.